

# '24년 3분기 가계소득 4.4% 증가(실질소득 +2.3%), 근로·사업·이전소득 모두 증가

- 2분기 연속 전 분위에서 총소득이 증가하며 5분기 연속 증가세 지속
- 흑자액 10.2% 증가, '22년 2분기 이후 9분기만에 소득증가율이 소비지출 증가율 상회

'24.3/4분기 가계소득은 임금상승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근로소득(+3.3%)·사업소득(+0.3%)·이전소득(+7.7%)이 모두 증가하며 총소득이 4.4% 증가<sup>5분기연속</sup>, 실질소득도 +2.3% 증가<sup>2분기연속</sup>하였다.

\*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23.3/4)3.4 (4/4)3.9 ('24.1/4)1.4 (2/4)3.5 (3/4)4.4

실질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23.3/4)0.2 (4/4)0.5 ('24.1/4)△1.6 (2/4)0.8 (3/4)2.3

\*\* 항목별 소득(전년동기비, 만원): (근로)332.9<+3.3%> (사업)98.7<+0.3%> (이전)78.4<+7.7%>

2분기 연속 모든 분위에서 총소득이 증가한 가운데, 1분위의 경우 고령가구 증가 등으로 근로·사업소득이 감소하였다. 5분위는 근로·사업·이전소득이 모두 증가하였다.

\* 분위별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전체)+4.4 (1분위)+5.4 (2)+3.5 (3)+3.4 (4)+1.8 (5)+6.5

소비지출은 주거·수도·광열, 음식숙박 등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체 소비지출은 3.5% 증가<sup>15분기연속</sup>하였다. '22년 2분기 이후 9분기만에 처음으로 소득 증가율이 소비지출 증가율을 상회, 흑자액은 대폭 증가(+10.2%)하였다.

\* 흑자액 = 처분가능소득 - 소비지출, 처분가능소득 = 총소득 - 비소비지출

소득 5분위배율은 5.69배로 전년동기대비 상승(+0.14배p)하였다. 다만,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(연간지표)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.

\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: ('21.3/4)5.34 ('22.3/4)5.75 ('23.3/4)5.55 (24.3/4)5.69

실질소득 증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·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,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.

※ 상세한 분석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	책임자	과 장	오현경 (044-215-8570)
		담당자	사무관	양지희 (joyee@korea.kr)

대한민국  
**정책브리핑**



1

주요 동향

전체 가구소득

□ (총소득)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5.5만원, 전년동기대비 +4.4% 증가

\*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3/4)3.4 (4/4)3.9 ('24.1/4)1.4 (2/4)3.5 (3/4)4.4

○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은 +2.3% 증가

\* 실질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3/4)0.2 (4/4)0.5 ('24.1/4)△1.6 (2/4)0.8 (3/4)2.3

\*\* 물가상승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3/4)3.1 (4/4)3.4 ('24.1/4)3.0 (2/4)2.7 (3/4)2.1

□ (소득항목별) 근로·사업·이전소득 모두 증가

\* 항목별 소득(만원): (근로)332.9<+3.3%> (사업)98.7<+0.3%> (이전)78.4<+7.7%>

○ (근로소득) 취업자 증가, 임금 상승 등에 따라 큰 폭 증가

\* 취업자 증감(전년동기비, 만명): ('23.3/4)26.3 (4/4)30.3 ('24.1/4)29.4 (2/4)14.6 (3/4)14.6

\*\* 전체 임금상승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3/4)2.7 (4/4)2.5 ('24.1/4)1.3 (2/4)3.6 (7월)7.4 (8)3.4

○ (사업소득) 자영업자 감소폭 축소\*에도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정체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 둔화

\* 자영업자 증감(전년동기비, 만명): ('23.3/4)6.8 (4/4)0.2 ('24.1/4)△0.9 (2/4)△10.1 (3/4)△2.6

\*\* 불변서비스업 생산지수(전년동기비, %): ('23.3/4)2.31 (4/4)1.77 ('24.1/4)2.06 (2/4)1.65 (3/4p)0.96

○ (이전소득) 국민·기초연금 수급액 인상(+3.6%) 및 수급자 증가, 부모급여 인상('23년 35~70만원 → '24년 50~100만원) 등으로 증가

분위별 소득

□ 모든 분위에서 소득 증가

\* 분위별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전체)+4.4 (1분위)+5.4 (2)+3.5 (3)+3.4 (4)+1.8 (5)+6.5

○ (1분위) 고령가구 증가 등으로 근로(△7.5%)·사업소득(△12.6%)은 감소했으나,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이전소득(+10.4%)이 큰 폭 증가하며 총소득 증가

\* 가구주 평균연령(세, '24.3/4): (1분위)61.7 (2)53.1 (3)50.6 (4)49.3 (5)50.5

- (5분위) 근로(+5.0%)·사업(+1.0%)·이전소득(+12.6%) 모두 증가하며 총소득 큰 폭 증가

## 지출 · 가계수지

- (비소비지출) 경상조세(+5.9%), 연금기여금(+2.4%) 증가 등의 영향으로 비소비지출이 증가(+0.5%)
  - 다만, 이자 증가율이  $\Delta 9.9\%$  감소하며 비소비지출 증가율 둔화
    - \* 비소비지출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3/4)4.3 (4/4)5.6 ('24.1/4)1.2 (2/4)3.7 **(3/4)0.5**
    - 비소비지출 주요 비목별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경상조세)+5.9 (연금)+2.4 (이자) $\Delta 9.9$
- (소비지출)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.7만원으로, 주거·수도·광열, 음식·숙박 등을 중심으로 +3.5% 증가(실질은 +1.4%)
  - 자동차 구입( $\Delta 24.8\%$ ) 및 통신장비( $\Delta 15.4\%$ ) 지출이 줄며 교통, 통신 등 감소
    - \* 소비지출 주요 비목별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주거수도광열)+12.6 (음식숙박)+5.6 (교통) $\Delta 4.3$  (통신) $\Delta 3.6$
- (가계수지) 총소득 증가로 처분가능소득은 +5.5% 증가하며 5분기 연속 증가, 흑자액은 +10.2% 증가
  - \* 처분가능소득 = 총소득 - 비소비지출, 흑자액 = 처분가능소득 - 소비지출
  - \*\* 처분가능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3/4)3.1 (4/4)3.5 ('24.1/4)1.4 (2/4)3.5 **(3/4)5.5**
  - 흑자액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3/4)1.2 (4/4)0.1 ('24.1/4) $\Delta 2.6$  (2/4)0.9 **(3/4)10.2**

## 소득분배

- (5분위배율)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5분위배율은 5.69배로 전년동기대비 상승(+0.14배p)
  - ※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= (시장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공적이전지출) /  $\sqrt{\text{가구원수}}$
  - \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(배) : ('21.3/4)5.34 ('22.3/4)5.75 ('23.3/4)5.55 **(24.3/4)5.69**
- 다만,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 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(연간지표)를 통해 판단

## □ (평가) 총소득 5분기 연속 증가세 지속, 실질소득 2분기 연속 증가

- '24.3분기 가계 총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증가하며 5분기 연속 증가, 근로·사업·이전소득 모두 증가
  - \*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3/4)3.4 (4/4)3.9 ('24.1/4)1.4 (2/4)3.5 **(3/4)4.4**
  - \*\* 분위별 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전체)+4.4 (1분위)+5.4 (2)+3.5 (3)+3.4 (4)+1.8 (5)+6.5  
항목별 소득(만원): (근로)332.9<+3.3%> (사업)98.7<+0.3%> (이전)78.4<+7.7%>
  - 실질소득은 +2.3% 증가하며 2분기 연속 증가, 증가율 확대
    - \* 실질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3/4)0.2 (4/4)0.5 ('24.1/4)△1.6 (2/4)0.8 **(3/4)2.3**
    - 물가상승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3/4)3.1 (4/4)3.4 ('24.1/4)3.0 (2/4)2.7 **(3/4)2.1**
- '22.2분기 이후 9분기만에 소득 증가율이 소비지출 증가율 상회
  - 비소비지출(+0.5%)과 소비지출(+3.5%) 모두 증가했으나, 총소득 큰 폭 증가로 처분가능소득(+5.5%) 및 흑자액(+10.2%) 모두 증가
    - \* 비소비지출 주요 비목별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경상조세)+5.9 (연금)+2.4 (이자)△9.9
    - 소비지출 주요 비목별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주거수도광열)+12.6 (음식숙박)+5.6 (교통)△4.3

## □ (대응방향) 실질소득 증가 흐름이 지속되고 민생현장의 어려움이 완화 될 수 있도록 고용·약자복지 확충 노력을 강화

- 물가안정세 확대에 따라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불확실성 존재
  - 실질소득 증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·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만전
  - 「일자리 전담반(TF)」 등을 통해 고용 여건 면밀히 점검하여 지원하고, 핵심 복지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등 약자복지 강화\*
    - \* '25년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(+6.42%), 자활성공금 신설(최대 150만원) 등
- 아울러, 동절기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
  - \*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인상(30.4→31.4만원) 및 사용기간 연장(7→8개월) 등